



하하이음교육공동체, 청소년 프리마켓 수익금 기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주민센터(동장 이미영)는 11일 하하이음교육공동체로부터 덕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안옥희)에 지정기탁금 32만2,000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 8일 열린 하하이음교육공동체 마을축제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프리마켓 수익금의 30%를 모은 것으로, 덕진동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써 달라는 마음이 담겼다.

이날 전달식에는 하가초등학교 임화정, 덕진중학교 박효정, 덕일중학교 이국 운영위원장이 학생들을 대신하여 참여해 기부금을 전하며, “아이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의 가치를 배울 수 있어 뜻깊다”고 전했다.

하하이음교육공동체는 2024년, 하가초·덕진중·덕일중 교원과 학부모, 운영위원장,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 지역주민 등이 함께 뜻을 모아 출범한 교육공동체이다.

/권희성기자



전북은행, 어른들과 '그래피티 니팅' 겨울맞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12일 전북은행 본점 앞 가로수 길에서 금암노인복지관(관장 최재훈)과 함께 '그래피티 니팅(Graffiti Knitting)'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은행 창립 66주년을 기념해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도시를 따뜻하게 물들이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가로수를 알록달록한 뜨개옷으로 감싸는 '그래피티 니팅'은 전통적인 손뜨개 기술과 현대 예술을 결합한 공공 미술 활동으로, 삭막한 도심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술적 표현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지난해에도 금암노인복지관과 함께 '실타래 버스킹(실버킹)'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간 소통을 도모한 바 있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시청 민원실에서 친절 교육 실시

남원시는 12일, 시청 민원실에서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행정 실현을 위해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 창구에서 근무하며 남원시 누리집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여러 차례 소개된 최윤실 주무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행복이 친절의 출발점이라는 주제로 진행, “내가 행복해야 시민에게도 진심 친절을 전할 수 있다”며 직원 스스로의 마음 관리와 프로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은 직원의 행복과 자긍심에서 시작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김제노인종합복지관, 따뜻한 나눔 겨울 이불 전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노기보)이 추운 겨울을 앞두고 강태원복지재단을 통해 겨울이불을 후원받아 지역사회 내 난방취약 노인 19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된 겨울이불은 김제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를 통해 직접 각 가정마다 전달됐으며, 생활지원사들이 어르신들의 인부를 살피며 어르신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왔다.

이번 이불세트를 전달한 한 생활지원사는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 내 마음도 따뜻해졌다.”고 전했다.

노기보 관장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강태원복지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김제노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 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통·신뢰의 장수기업 인증’

2025년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3개사서 개최... 지리산 운봉주조·유한회사 덕유·김제 품미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올해 새로 지정된 백년소상공인 3개사인 남원 지리산 운봉주조, 무주 유한회사 덕유, 김제 품미각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백년소상공인 제도는 15년 이상 업력을 유지하며 기술력, 경영역량, 사회공헌 등을 종합 평가해 지역 전통과 혁신을 이어가는 모범 소상공인을 인증하는 제도다. 전북지역에는 2025년 기준 백년가게 88개, 백년소상공인 63개가 지정되어 있다.

남원 지리산 운봉주조는 1대 최규창 대표의 노하위를 계승한 2대 최봉호 대표가 운영하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문화 보존에 힘쓰고 있다.

무주 유한회사 덕유는 지역 특산물 머루를 활용한 전통 머루와인 제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대표 이재국 씨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제 품미각은 1994년부터 가족 경영으로 이어져 온 중화요리 전문점으로, ‘착한기업’과 ‘차별화’를 지향하며 ‘소상공인’로도 선정되며 지역사회에 신뢰를 쌓아왔다.

현판식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전북본부장,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증서를 전달하고 축하했다.

백년소상공인 대표들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쌓아온 전통이 인정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신뢰와 품질을 지켜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세희 청장은 “백년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뿌리이자 사회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박기열 남원농협 조합장, 농협중앙회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 수상

남원농협은 박기열 조합장이 12일 농협중앙회의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 상은 전국 1,111개 농·축협 조합장 중 희망농업·행복농촌을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 농협 이념과 가치 확산, 범농협 핵심 가치 전파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조합장에게 공로를 인정해 주는 권위있는 상이다.

박기열 조합장은 발자취 고품질 상품화를 통한 판로 확대



및 농업소득 증대, 범농협 합동 농촌 일손돕기를 통한 농가 인력부족 해소, 산불피해 복구 성급 지원 등 농업인 복지 증진과 소득증대에 선도적인 역할의 지역사회 공헌이 인정받았다.

박기열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조합원과 임직원 모두가 함께 만든 성과



남원시의회, 지방자치의 날 맞아 유공 시민 표창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지난 11일 제13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유공 시민에게 주는 전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유공자로 선정된 채복희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남원지회 사무국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힘썼으며, 특히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채 사무국장은 지역교육공동체 마을 교사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지역 정체성과 역사인식 함양을 이끌고 지역 독서 문화 확산과, 맨발걷기로 활동하며 건강 알리기 역할을 담당하는 등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왔다.

김영태 의장은 “이번 표창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가치와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정읍 샘골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도지사 인증 획득

샘골농협(조합장 허수중)은 최근, 자체 로컬푸드 직매장이 도지사 인증직매장으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신뢰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정 관리하는 제도로 샘골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향후 2년간 인증 사업장 자격을 유지한다.

도지사 인증 직매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유통기간동안 도지사 명의의 지정서와 지정명판을 교부받고 도 자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선자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읍=김대환 기자



임실군,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임실군이 농업인 학습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1일 학습단체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학습단체이면서 농업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농촌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농촌의 삶 속에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배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임실=진홍영기자



신천지자원봉사단, 팔복동 공단 환경정화 실시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지부장 곽종렬)가 시민과 함께 환경정화에 나섰다. 최근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일대에서 ‘자연아 푸르자’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봉사에는 자원봉사자 35명이 참여해 공단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분리 배출을 했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과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봉사자는 60리터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해 주변 환경을 맑잡히 정비했다. 봉사활동 현장을 지나던 한 시민은 “쓰레기가 많아 걱정했는데 덕분에 거리가 깨끗해져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곽종렬 전주지부장은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매년 꾸준히 봉사활동과 기부를 이어오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연탄 나눔 봉사 역시 협회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경제인으로서의 책임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연대를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상근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 등 역량 강화 연수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12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장 등 45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고창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통·협력의 장을 마련, 농촌유학 및 지역 인재 양성 관련 선진 사례 탐방을 통해 고창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순창군육천장학회에서 운영하는 전북 유일의 기숙형 방과후 교육시설인 육천인숙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정주여건 확보를 통해 농촌유학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팔덕초등학교를 찾아 순창군의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실제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이번 연수에는 고창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고창군의회 오세환 의원)과 고창군 인재양성과장(유정현) 등이 참석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야간 매점 현장봉사

남원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10일, 도동동 물방개 놀이마에서 ‘이야기가 있는 야간 매점’을 주제로 현장 봉사(아웃리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쌀쌀해진 날씨에 맞춰 따뜻한 어묵과 빵, 음료 등을 나누며 청소년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기관의 역할과 주요 사업을 홍보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을 들으며 관내 일반 청소년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은둔형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정일신 센터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을 만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